

‘동학개미의 힘’ 증권사, 3분기 실적파티... 4분기는 글세

10곳 중 8곳 역대 최대실적 행진 미래에셋, 영업이익 전년비 72% ↑ NH투자증권, 역대최대실적 기록 4분기 거래대금 감소, 둔화 예상

주식투자 열풍에 힘입어 증권사의 최대 실적 공시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2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증권사 ‘실적파티’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 들면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늘어났다. 영업이 녹록치 않아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업금융(I/B) 부문도 시장 호황에 따른 기업공개(IPO) 증가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너도나도 ‘최대 실적’...증권사 3분기 ‘好好’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6월 말 기준 자기자본 순) 가운데 지난 13일까지 3분기 실적을 공시한 8곳이 3분기 또는 3분기 누적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분기 기준 최대

〈주요 증권사 10곳(6월 말 기준 자기자본 순) 올해 3분기 실적〉 (단위: 억원, %)

증권사	3분기 실적		전년 동기비 증가율		비고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미래에셋대우	2942	2310	71.6	67.7	3분기 최대
NH투자증권	3537	2396	201.3	197	분기 최대
한국투자증권	4811	2589	-27.8	106.6	-
삼성증권	3169	2337	165	163	분기 최대
KB증권	2326	2084	207.1	239.2	분기 최대
메리츠증권	2081	1625	72.2	55.7	3분기 최대
신한금융투자	1525	1275	127.2	115.0	분기 최대
하나금융투자	1375	1155	118.4	96.9	분기 최대
키움증권	3555	2634	314.4	295.1	분기 최대
대신증권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적을 기록한 곳이 6곳이다. 나머지 2곳도 역대 3분기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

미래에셋대우의 올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294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6% 늘었다. 매출은 2조 565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7% 감소했고 순이익은 2310억원으로 67.7%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던 지난 2분기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0% 이상 줄어 들었지만 3분기 기준으

로는 최대 실적이다.

NH투자증권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3537억원과 순이익의 2396억원을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01.3%와 197% 늘어난 수치다.

삼성증권도 3169억원의 영업이익에 2337억원의 순이익을 발표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분기 기준 최고였던 2018년 1분기(영업이익 1800억원, 순이익 1325억원)를 가뿐히

뛰어 넘었다.

키움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3배가량 성장하며 증권사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냈다. 3555억원의 영업이익과 26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314.4%와 295.1% 증가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도 분기 최대 실적 증권사로 이름을 올렸다. 모두 지난해보다 배 이상의 실적을 올린 곳들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106.6% 증가한 2589억으로 집계됐다. 2분기에 이어 2000억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메리츠증권은 영업이익 2081억원, 당기순이익 1625억원을 기록하며 최고 점이었다던 지난해 4분기 순이익(1640억원)에는 아쉽게 못 미쳤다. 그래도 3분기만 놓고 보면 역시 최대 실적이다.

이 외에도 다른 중소형 증권사를 살펴보면 신영증권이 지난해 3분기보다 10배가 넘는 순이익(434억원)을 내며 눈길을 끌었고 현대차증권도 406억원의 최대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브로커리지 수익이 효자노릇

온라인 거래 최강자로 꼽히는 키움증권의 성장세에서 알 수 있듯 증권사에 최대 실적을 안겨준 가장 큰 요인은 거

래대금 증가다. 3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조9000억원으로 2분기 21조8000억원보다 28.1% 늘었다. 지난 8월 11일엔 총 33조원어치 주식이 거래되며 시장 역사상 최대 거래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연스레 이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도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순영업수익이 232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79.4% 급증했다.

IPO시장에 출몰한 대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6월 30조원 넘게 청약증거금이 몰렸던 SK바이오팜이 7월 초 상장했고 9월 말에는 카카오게임즈가 60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이는 주관사의 IB 부문 실적과 직결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4분기 실적으로 향한다. 연말 계절성으로 인한 거래대금 감소로 3분기와 같은 실적 잔치는 없을 전망이다.

전매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중 거래대금은 3분기 대비 20% 가량 감소한 수준을 보여 브로커리지 수익 둔화가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증권사의 이익 창출 역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산업용 모바일 기기 글로벌 톱3 도약 목표” SSD 급성장 속 세대 전환기 수혜주

IPO 간담회

포인트모바일

79개국 196개 판매네트워크 보유 아마존 등 글로벌 메이저 고객 확보 평균 1% 미만 불량률로 안정성 ↑

“코스닥 상장을 통해 하니웰, 지브라에 이어 산업용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글로벌 톱(Top)3로 진입하겠다.”

산업용 모바일 기기 전문 업체 포인트모바일이 16일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포인트모바일은 산업용 모바일 기기, 산업용 스마트폰, 블루투스(Bluetooth) 바코드 스캐너, RFID 리더(Reader)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물류, 리테일, 생산,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 광범위한 산업에 제공한다.

포인트모바일의 핵심 경쟁력은 하니웰, 데이터로직, 카시오 등 다국적 기업과 ODM·OEM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체 기술력이다. 이는 국내 최초 산업용 안드로이드 OS 인증을 획득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과 극한의 사용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하드웨어 설계 기술로 발전했다. 또 150만대 이상 판매된 제품에서 평균 1% 미만의 불량률을 기록해 안전성과 기술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강삼권 포인트모바일 대표이사는 “다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포인트모바일 자체 브랜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현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바



16일 강삼권 포인트모바일 대표이사가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통해 아마존에 납품되는 대표제품 ‘PM550’ 시연을 하고 있다. /IR GO

코드가 쓰이는 곳에는 포인트모바일 제품이 모두 사용된다고 볼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포인트모바일은 전세계 79개국에서 196개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화를 통해 글로벌 리테일 1위인 아마존과 유럽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 1위인 알디를 글로벌 고객사로 확보했다. 아마존의 경우, 8년간 2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알디 또한 PM90 제품을 단독 모바일 기기 모델로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유럽 전역 알디 매장에 납품할 예정이다.

강 대표이사는 “3년전 아마존과 처음 미팅한 이후, 3년간 아마존 시스템에 맞는 호환성 테스트와 아마존이 요구하는 커스터마이징을 거쳐 인증을 받았다”며 “작년 25억원, 올해 100억원 가까이 아마존에서 매출을 냈다. 내년에는 더 성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인트모바일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90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기록했다.

향후 포인트모바일은 한 손가락만 이용해 바코드 스캔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초소형 웨어러블 바코드 스캐너를 개발 완료했고, 11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인 PM500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모바일 포스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강 대표이사는 “초소형 웨어러블 바코드 스캐너의 경우 아마존이 처음 개발을 의뢰했고, 내년 초 아마존에 추가 공급될 신규제품”이라며 “상장 이후 다수의 ODM·OEM 개발 경험을 통한 기술력과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확보를 바탕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인트모바일의 상장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로서 총 공모주식수는 109만 4873주다. 공모가 밴드는 1만3000원~1만5000원이며, 공모금액은 희망밴드상단 기준 164억원 규모다. 오는 16~17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된 후, 23~24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코스닥 상장은 다음 달 3일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株라쿨라의 종목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제조·판매 | 네오셈 |

올 4세대 SSD 제품 전환 수혜 기대 5세대 SSD테스터 기반기술도 확보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시장이 빠르게 커지며 5세대 SSD 테스터 개발 과정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네오셈이 수혜주로 주목됐다. 올해 3세대 SSD보다 처리 속도가 2배 빠른 4세대 SSD가 출시된 데 이어 2023년엔 5세대 SSD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품의 세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며 네오셈의 실적잔치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며 SSD 시장이 고성장 하고 있다”며 “SSD가 3세대에서 4세대로 교체되는 10년만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후공정 테스터 선두 업체인 네오셈에 주목하라”고 권했다.

네오셈은 2002년 설립된 메모리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제조·판매 업체다. 지난해 1월 대신밸런스제3호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와 합병해 코스닥에 상장됐다.

사업부문의 크게 세 가지다. SSD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사하는 테스터 사업, 가혹 조건에서 메모리반도체 기능을 검사하는 테스트감지기(MBT) 사업, 그리고 테스터 장비의 유상 A/S와 개조 등의 기타 사업이다. 올해 매출 비중은 SSD 테스터 84%, MBT 10%, 기

타 6%로 추정된다.

SSD 시장의 몸집이 급격히 불어나며 네오셈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SSD는 반도체를 결합한 차세대 데이터 저장장치다. 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업체들의 데이터센터 서버 구축에 사용된다. SSD 시장은 지난해 231억달러에서 올해 326억달러까지 41%가량 성장했다.

최 연구원은 “SSD 시장 성장 속 세대 전환에 주목하라”고 했다. 지난 10년간 주력 장치로 사용되던 3세대 SSD 제품이 올해부터 4세대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2년까지 업계 주력 제품은 대부분 4세대로 전환될 것”이라며 “네오셈에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네오셈은 현재 CPU 기반의 5세대 SSD 테스터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다. 3세대에서 4세대로 바뀌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5세대 전환까지는 삼성전자가 내년 말 엔지니어링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3년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SSD 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SSD 테스트 업체들 사이에서도 기술력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화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도 빠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리서치알음은 네오셈의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 5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4.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이익은 146억원으로 흑자전환 할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리서치알음의 적정 주가로 4950원을 제시했다. /송태화 기자